

2024년
고2
6월 학평

2024년 시행 고2 6월 학평 국어 독서 | 리콥르의 자기 해석학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프랑스의 철학자 리콥르는 텍스트, 즉 **이야기(=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자기 해석학을 주장하였다.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는 미메시스의 개념을 확장**(리콥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음.)하여 **‘미메시스의 삼중 구조(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를 통한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을 설명하였다.

▶ 자기 해석학을 주장한 리콥르

미메시스란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미메시스의 개념) 세계를 이상과 현실의 이원적 구조로 본 [플라톤은 현실을 이상 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것으로 보았는데,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은 그 현실을 또 다시 모방한 것으로 보았다.**(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을 다시 모방한 것으로 보았음. **내용 이해 문제의 선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는 감각 세계인 현실을 모방한 예술은 인간을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인식하였다.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은 그 갈래마다 모방의 양태가 다르다. 연극은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 인물이 직접 현실을 모방하고, 서사시는 서술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현실을 모방한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일을 필연성에 따라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적 모방이며,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인간이 쾌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았다.](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모방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플라톤은 예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받아들여 리콥르는 미메시스를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 미메시스로서의 문학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독자의 삶으로까지 연결하고자 하였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리콥르

리콥르는 미메시스를 **전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I, 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II, 재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III의 삼중 구조로 설정하였다.**(미메시스의 단계별 특징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미메시스 I 은 작가가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화하기 전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 작가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며 말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미를 독자 또한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미메시스 II는 미메시스 I 에서의 행동이 서사적 흐름 속에서 줄거리로 구성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작가는 인간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동 중에서 자신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행동만을 골라 인과 관계에 따라 배치한다. 이때 형상화된 세계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한 허구의 세계이다. 미메시스 III은 문학과 현실 세계를 잇고자 했던 리콥르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독자는 독서를 통해 허구적 인물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비추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사건을 선택하여 줄거리를 만들어 보며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반성하게 된다.

▶ 미메시스의 과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메시스 III에서는 독자의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는데, 리콥르는 이를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야기 정체성은 이야기를 매개로 파악되는 인물의 정체성으로, 이야기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인물의 면모가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된 것이다. 리콥르에 따르면 독자는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독자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 이해 과정**(독자가 자신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리콥르는 서사적 흐름 속에서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이 형상화되며 이야기가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독자도 자기 삶을 이야기

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보았다.

▶ 리콰르가 말하는 자기 이해 과정

지문 확인

■ 주제: 이야기를 통해 자기 이해에 이르게 되는 리콰르의 자기 해석학

■ 각 단락 중심 내용

1문단: 자기 해석학을 주장한 리콰르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의 개념을 확장한 리콰르
- 미메시스의 3중 구조를 제시함.

2문단: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리콰르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예술관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 미메시스로의 예술은 현실을 모방한 것
 - 차이점: 플라톤은 인간을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인식한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창조적 모방이며, 인간의 감정을 정확하고 인간이 쾌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
- 리콰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을 발전시켜 미메시스로서의 문학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독자의 삶으로까지 연결하고자 함.

3문단: 미메시스의 과정

- 미메시스의 3중 구조
 - 미메시스 I : 작가가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화하기 전 단계, 작가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며 말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미를 독자 또한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함.
 - 미메시스 II : 미메시스 I에서의 행동이 서사적 흐름 속에서 줄거리로 구성되는 단계, 작가는 인간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동 중에서 자신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행동만을 골라 인과 관계에 따라 배치함.
 - 미메시스 III : 가장 핵심적인 단계, 독자는 허구적 인물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반성하게 됨.

4문단: 리콰르가 말하는 자기 이해 과정

- 이야기의 정체성
 - 이야기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인물의 면모가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된 것
 - 독자는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독자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감.
- 자기 이해 과정
 - 리콰르는 서사적 흐름 속에서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이 형상화되며 이야기가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독자도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봄.

서지정보

저자 김웅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7065-2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가격 500원

값 500 원



9 791137 770652

ISBN 979-11-377-7065-2 (PDF)